

韓國의 線美

—建築의 美—

洪哲洙

이 글은 한국건축가협회가 민족박물관 건립에 있어 문공부로 부터 위촉받아 앞으로 세미나를 개최키로 하고 한국건축이 지향할 좌표설정 에 즈음하여 隨想으로 엮어보았음.

傳統이 사라져 간다. 우리의 열이 점점 멀어져간다. 우리의 思想 우리의 숨결이 죽어간다. 우리 周圍에 傳統의 美는 消滅되고 밖에서 쏟아져오는 외래것에 병들어 가고 있다.

우리가 만들어낸 美, 그 美의 世界를 상실해서는 안된다. 外來종조도 좋지만 傳統과 基盤이 있어야 건전한 前進이 成立한다. 우리가 살아온 韓國의 美를 저버리고 外部의 자극은 마취제밖에 안된다. 마취에서 깨어나면 기억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옛것을 사랑해야겠다.

1. 線美의 뜻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보통 아름다움의 추구소재로 女人의 肉體美를 택한다. 풍만한 女人의 肉體가 形態와 空間이라는 아름다운 각선미를 만든다. 이때 線의 作用이 이루어지고 線의 位置가 決定되고 線의 性格이 생긴다. 線은 어떤 구속을 받지않을때 自動意識에 依해서 無限히 굽고 어질수 있다. 線은 어떤 대상물을 表現目的으로 삼을때는 구속을 받는다.

線은 作用과 位置에 따라서 여러가지 性格을 지니게 되고 이것이 잘 어울려서 한 形態를 조형화 시켰을때 線의 아름다움이 있게된다.

線은 이러하다.

曲線은 부드럽고 환상과 낭만을,
直線은 理性的이고, 날카롭고 딱딱하며,
사실은 진취적이며 불안감을 주고,
굽은 線은 무게와 힘을,
가는 線은 섬세와 소박함을 주고,
고정된 線은 안정감을,
움직이는 線은 時間의 進行을 뜻한다.

온갖 曲線은 自然이 간직하고 있는 自然의 線이고 온갖 直線은 人間이 만들어낸 人爲의 線이다. 線美는 이러한 線

들이 함께 어울려 창작적인 성격을 띠울때 이루어진다.

우리 韓國의 線美는 自然으로 이루어진 부드러운 曲線에 가깝다.

2. 韓國의 線美의 特色

韓國의 線의 美를 단적으로 表現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自然에 감화를 받아 아담한 형태를 이루는 線.
- (2) 주변국가 中國大陸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독자적인 조형의식으로서 소박한 作為없는 線의 旋律.
- (3) 抒情的 感性을 빛바침으로 하는 小市民의인 無事主義에서 喜怒哀樂을 노래부르는 線.

이것이 韓國의 線美이다.

한줄기의 가늘고 고운 흐름이 藝術의 밑바닥을 소리도 없이 지나가는것 이것이 韓國의 線美라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音樂에 흐름이 그러하고 文學作品의 묘사가 고운 曲線으로 人間과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特質을 안고 있는 韓國의 建築에 있어서 線美란 어떤것인가.

3. 建築의 美

韓國建築은 曲線의 線美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창살, 장식, 무늬등 曲線의 代表的인것은 지붕과 처마(檐下)에 있다. 지붕의 배후에 전개되는 江山의 기복에 어울리는 曲線은 한결같이 부드럽고 명쾌하고 응체(凝滯) 없는 유동성을 보이면서 마음의 금선(琴線)에 音樂과 같은 旋律을 전해준다.

이 線美는 과욕이나 허식에서 表現되는 線이 아니고 오히려 정감에서 우러난 미묘한 감동이기 때문에 고요하고 정적이면서 따뜻하다. 이러한 태도는 現實에 애착심이 없고 어떠한 권유나 힘에도 구애없이 오로지 순수한 人生觀에서 우러나온 線인것이다. 때문에 中國의것이 풍만하고 관능적인 둔중한 形態라면 日本의것이 色彩에 가까운 차갑고 날카로운 무미 건조한 線이다. 이에비해 韓國은 바로

線의이라는 民族的 特質을 가지고 있다.

이점에 있어 歷史的인 代表作 建築의 線美를 살펴보자.

(1) 고구려 고분 벽화의 線美

한마디로 雄渾한 線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中國이라는 강대국들과의 힘의 대결상태에서 오는 人間宿命에 오는 것이겠으나 線美는 날카롭고 강렬한 意識에서 오는 그런 美가 아니고 보통 세상 살이에서 오는 솔직한 自然의 線美를 나타내고 있다.

(2) 부여 정립사지 5층석탑의 線美

이탑은 木造建築樣式을 들로 옮긴 탑으로서 백제 운명을 혼자서 대변하고 있는 백제미술의 精華를 한몸에 지닌 걸작인데 그 線美는 세부의 기법에 사로잡히지 않고 아름다운 체감율을 강조하면서 전체적으로 긴장감을 잃지않은 內剛한 힘이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이다.

(3) 석가탑과 다보탑의 線美

석가탑이 男性的이라면 다보탑은 女性的인 線美를 준다. 석가탑은 간결한 수법에 돌의 맛 장중한 線美를 남김없이 발휘하고 大地에 부동의 안정감과 曲雅 명량한 균형의 美를 발산하고 있는 우아한 線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다보탑은 복잡하면서도 端正한 맛을 잃지 않고 직선과 곡선을 자유롭게 驅使하여 木造建築과 石造建築의 형태미를 조화있게 表現한 독창적인 線美의 묘미를 발하고 있다. 石材에서 느끼는 냉엄한 線美도 아니고 木材의 감기도 아닌 一種의 美의 교향악과도 같은 수려한 構成의 극치를 이룬 線의 美를 가지고 있다.

(4) 고려대의 석탑과 무량수전의 線美

부석사 무량수전의 線美는 우리나라 木造建築物中 최고 걸작이다. 그 자유로운 構造美의 線과 精練된 技法의 線美는 簡紡高雅한 線美를 풍긴다. 고려시대의 석탑들도 섬세하고 우려한 線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꿈나라에 노는 환상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러한 線美는 강원도 原州에 있는 法泉寺 智光國師玄妙塔에서 볼수 있다.

이탑은 선종 2년에 건립된것으로 기단에서부터 寶珠에 이르기까지 화려하게 조각된 線美는 뛰어난 것이며 이 石塔建築의 線美는 우리나라 美術史上에 그 유례를 찾기 힘들다.

(5) 李朝建築의 線美

이조시대의 線美는 웅대하고 화려한 線들이며 지금 경북 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에서 찾아볼수 있다.

내부修粧의 線美도 화려한것이 特色이며 창덕궁의 낙선제 창경궁의 연경당은 주택양식의 전형적인 建物로서 우리나라 고유의 特質이 잘 나타난 간소한 아담한 線美는 오색단청으로 화려하게 꾸민 궁전에 비해 淸楚한 정을 느끼는 線美를 준다. 이조 후기에 들어와서 線의 美는 좀 달라

진다. 이조초기처럼 간결 雄勁한 맛의 線美는 없어지고 섬세한 감이 앞서는 점이다. 기둥에 배가 불룩한 “엔타시스”가 없어져 약해 보이고 柱上의 包作은 번쇄(煩鎖)하게 형식화된 線美로 變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形態美의 線美는 전체의 균형과 안정감에는 변함이 없다.

李朝時代의 지붕의 曲線은 建物의 배경에 전개되는 반도 강산의 부드러운 自然의 線과 잘 조화되어 우리 감정과 공명할수 있는 旋律에 속하는 線美의 曲線인 것이다.

그러면 이 우리네의 生活感情과 공명할수 있는 歷史的 유래 즉 傳統의 共通點은 어디에 있는지?

4. 歷史的 유래(傳統)

역사가들은 과연 우리美術이 진정한 우리것이냐 아니면 中國大陸의인 것이냐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리고 있는것 같다. 그런데 여기 한줄기 불빛이 있다. 그것은 韓國의 線이 있다는 것이다. 한줄기의 가늘고 아름다운 흐름이 예술의 밑바닥을 소리도없이 지나간다. 그것은 바로 우리만의 傳統인 것이다. 이점 상기 韓國의 線美의 特色에서 말한바 있거니와 이 우리 정서적 얼은 어디서 유래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려하다. 우리의 생활감정 자연그대로의 멋. 韓國의 線美는 우리 自然 그대로인 것이다. 自然은 中國的인 大陸의 自然도 있을것이고 섬나라인 日本의 自然도 있을 것이다.

韓國의 山水에는 깊은 협곡이 패이고 칼날같은 바위가 용립하는 요란스러운 自然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 나라의 산은 부드럽고 사람을 위압하지 못한다. 세상 또 어디에 흰구름 날아간 뒤의 맑은 한국하늘의 어여쁨이 있는가?

이 맑은 하늘밑 山水속에 童心같은 한국의 백성들이 살고 있으니 봄이면 진달래피고 가을이면 청아한 가을하늘 아래 단풍이 곱게 물든다. 단풍은 세계도처에 있으나 길을 뒤덮고 산을 감추어 버리는 거대하고 위압적인 단풍은 아니다. 자기자신을 은근히 숨기려는 절허가 있다. 중복하는 말이지만 韓國의 線美는 自然그대로의 美인 것이다. 時代가 바뀔때 따라 美術의 形態가 바뀌고 強弱集散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美의 根本을 이루는 自然의 美는 그 性格을 달리하지 않는다. 고구려 벽화가 그렇다. 가식된 날카로운 선이 아니라 보통세상살이 하는 사람의 세계에서 우러나오는 기교가 없는 은근한 자연의 멋이 있다. 권세도 필요없고 명예도 필요없다. 과장도 없고 장식도 없다. 일상 보아오는 보통 삶, 신기한것도 없고 풍자도 없다. 線의 멋도 中國의 것처럼 인공적인것을 피하는 自然에의 복귀가 있는 것이다. 신라에서 보는 석굴암도 그렇다. 中國것 처럼 人格을 초월하여 佛格을 과시하려는 과장된 얼굴이 아니라 조용한 산중에 철따라 삐죽새 우는 自然그대로의 자애로운 웃음을 띠고 세련된 자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고려대에 와서도 마찬가지다. 中國의 자기가 사물을 가감변조하여 인공적 장식을 한데 반하여 고려청자는 자기주변에 있는 사물을 그대로 옮기는 자연에 직결시키는 사상 그 선

은 섬세하고 약한듯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이조시대도 매 한가지다. 욕심도 없고 그렇다고 사심도 없다. 솔직하고 뽐내지 않고 자연 그대로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의 멋이요, 사상이다. 전통의 어여쁨이다. 우리 韓國의 線의 아름다움은 이상과 같은 유례에서 기인한다 보겠다.

5. 지향점

우리가 만들어낸 美 우리가 살아오고 몸매번 세계의 美 自然속에 있었던 美以前 세계에 있었던 우리 韓國의 美는 우리아닌 그 누구도 연구 발전시키지 못한다. 김치 깍두기를 먹는 우리가 아니면 안된다. 감정이 공감되어야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위대했던 우리美를 西區의 새로운 文化에 융화시켜야만 하겠다. 인위적인 힘에 의하지 않고는 자연은 찢하지 않는다. 여기에 우리美의 生命이 있는것이다.

이것은 한 개인의 힘으로는 어려울것이다. 國家와 社會의 대 전제가 된다. 韓國의 線美는 韓國建築美를 승화시

키는데 있어 現代建築의 사조와 더불어 重要한 位置를 차지한다 하겠다. 이점 現代 우리 韓國建築의 線美는 거의 불모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서구의 것을 거의 소화 비판도 없이 마구 받아들인 상태가 바로 우리의 현실인것이다.

한마디로 현대건축은 直線이다. 그리고 기능이다. 그런데 우리 韓國의 건축은 曲線이다. 直線과 曲線을 어떻게 융화시키느냐가 문제이다. 이속엔 우리의 유구한 사상이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때만이 우리 후손들은 우리를 배우고 옛부터 우리 조상들의 열이 중단되지 않고 계승되었다. 육하지 못할것이다. 지금 韓國의 線美는 점점 살아져가고 있다. 보존도 없고 연구 개발도 거의 없는것이다.

우리 서울은 오랜전통을 지닌 古都이지만 어설피기만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무질서한 線들이 난무하고있다. 건축가들의 분발이 요청되고 國家와 社會 그리고 大企業家들의 협조가 요청된다 하겠다.

과거를 저버린 현재란 참될수 없고 참된 현재가 아닌것은 참된미래도 아닐 것이다. 筆者：韓國建築文化研究所長

〈新 刊〉

建 築 構 造

第一編

東国大学校 教授 吉正天 編 工科大学 教授 吉正天 編 訳

治庭文化社 刊

連絡處：大韓建築学会 畧 4,200